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염혜*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밴쿠버 랑가라 49th 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방학이여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는 햄버거나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강의실도 청결하여 전반적으로 준수했습니다.</p>
수업	<p>학교 첫 번 째날, 듣기 시험을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다 같이 봅니다. 그 성적을 토대로, 5개의 반으로 나누는데 저는 LEVEL 5 반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여러나라 친구들은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었고, 선생님 역시 학생들은 많이 가르쳐 본 선생님이라 친절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수업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주로, 일상생활을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회화나 밴쿠버의 관광명소 등을 영어로 얘기하는 시간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우리 반은 과제는 10분이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 이였고 수업준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p> <p>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은 숙제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영어발음이 좋은 편이 아니라 알아듣는 것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기간이 긴 편이 아니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오전만 수업하는 날 한번, 오후까지 수업하는 날 2 번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오전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놀러가거나, 수업을 하지 않고 관광하러 다녔습니다. 항상 돌아다니다 보니 상당히 피곤하였지만 놀러다니는 시간이 무척 재밌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p> <p>여러 활동 중, 디스커버 밴쿠버는 체력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밴쿠버 관광지를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는데, 운동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휘슬러 트립입니다. 사전에 학교에서 따뜻한 옷을 챙겨 오라고 하셔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휘슬러는 해발 2000M 가 넘는 산으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데 정상에 서면 정말 짜릿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고,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생각한 프로그램들이었기에 무척 만족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수업이 끝난 후나 주말에는 같은 반 친구들이나 학교 학생들끼리 밴쿠버의 여러 곳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 스탠리 파크에서 해변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탄 것이 기억에 남는데 저는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러 온 사람들이 많아 만약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한다면,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p> <p>가장 좋았던 장소는 잉글리쉬 베이 입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는 곳입니다. 친구들과 끼리 둘러 앉아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 이였습니다.</p> <p>마지막으로, 그랜빌 하우스는 맥주공장과 퍼블릭 마켓이 있는 곳인데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시장같은 곳입니다. 여름철에는 체리나 여러 베리들이 상당히 저렴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사기에 적합한 곳입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첫 째 주는 상당히 추웠습니다. 한 낮에도 18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긴 팔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주는 다시 날씨가 따뜻해져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두꺼운 옷2벌 정도와 간단히 걸칠 옷, 긴팔 과 반팔을 적절히 섞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방이 아래층에 있어 잘 때 추웠다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 점까지 생각해서 충분한 옷을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p>
안전	<p>밴쿠버는 거리 하나를 두고 상황이 참 다릅니다. 늦게 돌아다니지 않을 것을 추천하고 특히 차이나타운이나 게스타운 쪽 할렘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고 갔었는데 홈리스들이 따라오고 여러 무서운 상황들이 있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1시 전 귀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안전합니다.</p>
숙소	<p>홈스테이 가족들은 친절하였고 아이 3명이있어서 저에게 많은 신경을 쏟지는 못했지만 저녁식사 시간마다 항상 많이 이야기 하려 노력해 주셔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p>

<div>식사</div>	<div>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div> <p>아침은 홈스테이 집에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저녁은 주로 나가 사먹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불편 사항은 식사였는데, 우리나라 입맛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밀가루 알러지가 있어 힘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라면을 가지고와 학교에서 먹다던가 학교의 구내시설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p>
<div>교통</div>	<p>교통은 학교에서 준 1달 무료카드로 버스는 무료로 지하철은 1존까지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사 비용	200	저녁 식사 및 간식
기념품	900	
여행 지출 비용	300	
합계	1400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라면을 챙기시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현지 음식들이 입맛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긴팔과 두꺼운 옷들도 2~3벌 정도는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오래있다 보니 보조배터리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벤쿠버는 시계나 옷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쇼핑을 즐기신다면 여유롭게 돈을 챙겨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벤쿠버에서의 3주는 잊지 못 할 추억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여러 나라의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곳에 나아가보니 생각도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벤쿠버를 가기까지 들어간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만약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곳을 다녀와 영어의 중요성역시 다시 느꼈습니다.